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령 강림 대축일 (성모성월)

제27권 26호 (다해) 2007.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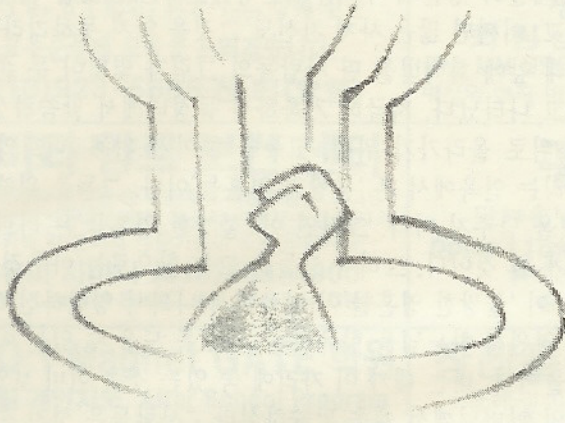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213)458-0396

[묵상]

미사

수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목 요 일	평 일 미 사	오후 7:30
금 요 일	평 일 미 사	오전 8:30
토 요 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 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햇살바람

햇살처럼 바람처럼 불어와서

내 영혼 깨우시고, 나와 함께 숨 쉬시네.

내 눈과 귀 다시 보고, 다시 듣게 하시고

내 혀가 풀어져 참말을 하게 하시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주간 행사들

화 요 일	백삼위 신앙학교 (4단계 7월2일까지)	오후 7:30
수 요 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 요 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 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 요 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 요 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 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 무 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생)민영준 마르코
주 일 낮 미사	(연)손석조 마리아, 임홍규 베드로, 이순자 데레사 최병기 요셉 & 정요임 안나, 모광기 요셉, 양갑순 마리아 정운 요셉, 김인영 베드로, 김형진, 김창배 파스칼 이원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데니스웨버 (생)장수창 요한 & 윤서 야고보, 김소영 요안나, 이봉림 안나 이종민 요셉, 이유진 대건안드레아, 니콜라스 & 폴 김 오세택 & 진자 마리아가정, 김상근 바오로 가정 권태만 실베스테르와 데레사 가정, 강찬웅, 정리디아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2.1-11

화답송 ○야훼님, 당신 얼굴 보내시고
누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소서.
<전례성가 74 성령 강림 대축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어라
내 하느님 야훼시여, 주님이 하신 일이 많고도
많건마는, 온 땅에 당신 조물 가득차 있나이다.○
○열을 거두시면 그들은 숨져버려 드디어
티끌로 돌아가고 마나이다. 보내시는 당신 열에
그들은 창조되어 누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야훼님 영광은 영원하소서. 야훼님은 이루신 일
기뻐하소서. 이노래를 기꺼이 받아들이시면
주님 안에서 나는 즐거우리다.○

제 2독서 코린토서 12.3-7.12-13

부속가 오소서, 성령님,
<성령 송가>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 돋워주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플 때에 위로를.
지복의 빛이시여 저희 맘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저희 삶
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밤 풀어 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철은을 베푸소서.
공덕을 쌓게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아멘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복 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차, 하느님의 위업을
말하였도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72	315
봉헌	259	317, 256
성체	401	279, 281
파견	166	170(3, 4)

✠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6) ✠

“대주교보다 뒤에 있는 나를 보아서 놀라지 않았느냐? 그것은 당연하다. 나의 아들이 내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지만, 사제들에게 준 그런 존엄과 권능, 즉 사제의 손의 매일 거행하고 이루어내듯이 매일 내 손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데려오는 힘은 내게 주지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제에게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제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기적에 그리고 큰 주의와 존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다.”

나의 하느님, 주님께서 얼마나 큰 존엄과 얼마나 많은 은총을 사제들의 영혼에 부어주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쩌면 많은 사제 자신도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제대 앞에 회색빛을 띤 사람들의 그림자 몇몇이 두 손을 위로 쳐들고 나타났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 고통을 줄이기 위해, 너희의 기도를 기다리는 연옥에서 온 ‘불쌍한 영혼들’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그러면 이 ‘불쌍한 영혼들’은 너희를 위해 청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불쌍한 영혼들’이 연옥에서 나와서 영원하신 하느님을 뵈고 영원히 하느님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이는 바로 너희들이다. 너는 내가 이 자리에 쫓 있는 것을 이미 보았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성지 순례를 하고 내 발현지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많은 은총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옳바르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내게 분명히 말한다. 내 발현지에서도, 세상의 어느곳에서도 거룩한 미사에서처럼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는다. 거룩한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제대 발치에서 너희는 나를 언제나 만날 수 있다. 나는 감실 아래에서 천사들과 함께 머문다. 나는 언제나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극히 아름다우신 하느님의 어머니의 얼굴을, 다른 모든 얼굴처럼 빛나고 있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은, “거룩하시도다”가 불리는 순간은, 거기 두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온 누리에서 언제나 새롭게 끊임없이 거행되는 저 위대한 기적을 기다리는 순간은,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 그 자체였다. 이 순간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거나 서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큰 고통을 내 마음속에 느끼면서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주님께 상투적인 존경을 바치려는 듯이 그저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수수방관하며 미사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다.

거룩하신 동정녀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보다 더 사람다운 때는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집전 사제가 ‘성변화의 축성문’을 말했다. 평상시의 키였던 대주교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더니 빛으로 가득찼다. 그 빛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다. 흰색과 금색의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의 얼굴에서 아주 강하게 뿜어져 나와 그의 얼굴을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가 성체를 들어 올리자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

● 카탈리나 리바스 / 다음 주에 계속

성령은 하느님의 힘이며 지혜

러시아의 대문호 레오 톨스토이는 최후의 대작 '인생의 길'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내게 믿음이 생겼다.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믿었다. 나의 모든 생활이 급작스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나는 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전에 원치 않았던 것을 원하게 되었다.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릇된 일이 되고, 과거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이 옳은 일이 되었다. 나의 생활과 욕망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선과 악은 서로 그 의미를 바꾸었다."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福音)을 만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래알 같은 시몬을 바위 같은 베드로로 변화시켰고, 박해자 사울을 사도 바오로로 변화시켰으며, 방탕한 생활에 빠진 어거스틴을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로 회개시키셨습니다. 또한 나자렛 시골 처녀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함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실 때에 인간의 나약함과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다락방에 숨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그 분은 진정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포기요, 절망이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 근원적인 힘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성령은 나약하고 부족한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 우리 초대 교회를 태동하게 하는 힘이었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탕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가려 했던 제자들이, 꼭꼭 숨었던 다락방을 박차고 나와 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당당하게 증언하기 시작한 것은 성령의 지혜이며 힘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굴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음식이며 힘이며 우리의 활력입니다. 또한 성령의 은혜는 진정한 회개에서 오며, 감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성부와 성자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라는 화해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참된 평화는 이와 같이 성령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요한 20,22-23)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미아3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레 테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김정은 세실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오세원 아나타시오
제2독서자	이원애 에스터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 북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주영 크리센시아	이호미 엘리사벳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최태훈 아우스딩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황지영 안젤라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칼 1.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 지난 주간 합계: 4,046단 ☞ 총 합계: 131,180단

6월



- ◆ 성모신심미사: 2일(토), 오전 8시30분
- ◆ 병자영성체: 7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시간: 7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진행: 토렌스 서구역 진행

◆ 주일 학교 고등부 견진

- 6월1일(금) 오후 6시, St. Margaret Mary Church
- Reflection: 5월31일(목), 오후 7시~9시

◆ 초.중.고등부 세례 및 첫 영성체

- 찰고: 6월9일(토), 오후 5시
- 총연습: 6월9일(토), 오후 5시30분
- 세례식: 6월9일(토), 오후 6시
- 첫 영성체: 6월10일(주일), 낮미사
- 축하식: 6월10일(주일) 낮 미사후, 강당

◆ 주일 학교 Summer Camp 신청

- Camp: 7월13일(금)~15(주일)
- Woodspring Wind, Julian, CA (Food, Cabin 제공됨)
- 캠프비용: \$102 (학생부담 \$70, 본당 보조 \$32 + Bus)
- 신청마감: 6월17일(주일)까지

◆ 백삼위 신앙학교 제4단계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7월2일까지), 성전
- 본당신부님 주일 강론 및 신앙학교 Cassette Tape이 사무실에 준비되었습니다.
- ※ 6월5일(화) 신앙학교는 성령세미나 강의로 대체 합니다.

◆ 제6차 백삼위 성령세미나

- 6월5일(화)~10일(주일), 성전
 - 화~목: 찬미-오후 7시, 미사-7시30분, 강의-8시
 - 토: 강의-토요특전미사(오후7시) 후
 - 주일: 찬미-오후1시30분, 강의-2시,과견미사-3시30분
- 주제: "주님과 함께 하는 여정"
- 강사: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 한국 미래내 성지
- 수강료 없습니다.

◆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와 노래자랑 한마당을 위해서 수고해주신 사목회 각 부서와 단체 그리고 참가해주신 모든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주일 학교 백삼위 축구부 연습 및 게임(vs. 성마리아 성당)

- 게임: 6월3일(주일) 오후 4시, Cerritos Regional Park
19800 Broomfield Ave.
- 복장: 셔츠와 검정 반바지 (Uniform 준비 되지 않을 경우)
-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본당 운동장
- 대상: 2학년~6학년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거룩한 독서

- 5월30일 수요일 임사 휴강

◆ 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5월27일: 하버/칼슨 1반 (장터 국수 \$3)
- 6월 3일: 소공동체 (김밥/떡 \$3.50)

☺ 축하합니다. ☺

◆ 유아세례: 5월26일(토), 오후 6시

- 박다니엘 박현 다미아노

☺ 환영합니다. ☺

◆ 지난 주에 저희 본당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 김병철 요아킴 / 윤미애 안나
- 자녀: 지수 해레나, 지형 마리아
- 안태갑 미카엘 / 윤정숙 마리아미카엘라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곽효식 권태만 김영미 김원호 김일선 김철웅 민경근 박상준 박선희 박현주 변세연 서홍삼 손석조 엄세중 오기석 오수인 오영섭 유희연 육근주 이명자 이문종 이재용 임현기 지경수 차봉관 최상만 최진수 하정화 한윤진 박제이콕 이크리스 합계 : \$4,750	성전헌금	권태만 김영미 김원호 김일선 김철웅 민경근 박상준 박선희 변세연 손석조 엄세중 오기석 오수인 오영섭 유희연 육근주 이명자 이문종 이일길 이재용 임현기 지경수 차봉관 최상만 최진수 하정화 박제이콕 이크리스 합계 : \$2,890
미사헌금	\$ 2,581	감사헌금	민성원 박현주 박태준 손석조

공지사항

❖ 주일학교 고등부

전진을 축하합니다. ❖

국성민 토니 김도날드 김데이빗 나혁구 앤드류

선 김 임레이첼 유예진 유딧

임 오스틴 차민규 요한

주현우 가브리엘라 최캐서린

최클라라 한알렉스 현제니퍼

남가주 소식

◆ 제20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5월31일(목)~6월3일(주일) 접수시작 목요일 오후3시
- Mater Dolorosa Passionist Retreat Center
700 N. Sunnyside Ave., Sierra Madre CA 91204
- 강사: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
- 대상: 성령 체험을 원하는 모든 교우
- 참가비: \$250
- 문의: 각성당 기도회장 or 성령봉사회 (818)480-1615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 제7회 M.E. 친선 골프대회

- 6월13일(수) 오후 12시 Shot Gun Play
- Montebello Country Club
901 Via San Clemente, Montebello, CA 90640
- 회비: \$100 (점심, 저녁 제공)
- 시상: 메달리스트, 장타상, 근접상, 홀인원상, 부부상 외 다양한 Event 및 경품제공
- 연락처: 각 성당 M.E, 대표 오 스테파노(310)922-1502

◆ 제16차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8월3일(금)~5일(주일)
- Mary Joseph Retreat Center
5300 Crest Rd., R.P.V., CA 90275
- 대상: 22~35세 미만의 미혼 남녀
- 신청마감: 6월30(토) ● 참가비: \$150
- 문의: 남가주 선택 협의회 (714)713-0131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 상임 위원회 오후 1시, 강당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반장 모임 오후 1시, 강당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아나 320-3697	1	김양금 아나 518-3041	김양금 아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정기은 비오 618-9775 5/12(토) 오후 7시
	3	정정숙 레아 791-5696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4	권본경 율리아 834-2831	형제만 1째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만 3째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5/11(금)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장주란 마리아 486-1982 5/11(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이복임 엘리자벳 516-0818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체육대회 후 친교자리 5/20(주일), 오후 5시, 친교장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5/11(금) 오후7시30분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김병학 대견안드레아 544-4807 5/18(금) 오후 7시30분
	3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김용명 프란치스코 544-9532 5/11(금) 오후7시
	4	석기순 엘리자벳 265-0495	석기순 엘리자벳 265-0495

The Reason I'm Getting Confirmed. [I]

☞ 주일학교 고등부 전진자들이 전진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체험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The one experience that changed my faith was High School Youth Conference Steubenville, San Diego. I felt my heart filled with joy, and I've never felt so relaxed and happy in my life. I couldn't help but smile the whole time. In that moment, I realized that I found God. In that moment, I wanted to confirm my faith.

● Alex Han ●

The reason I want to get confirmed as a Catholic is because Catholicism changed my faith in God. Being a Christian, I never really had strong faith to attend church weekly and to learn about God because of so many fights inside the church. Although I prayed every night, I didn't see the point of attending church. But when I got baptized as a Catholic, everything changed, I look forward to go to church every Sunday. Whenever I had struggles, the Church was the only place that made me comfortable.

Being confirmed means a lot to me because it states that I will be able to take the Eucharist on every Sunday for the rest of my life. Every time I take the Bread into my mouth, I feel a weird tinges going through my body making me feel safe and forgiven. Every time I take the Bread, I feel like all my sins are washed away and that I will be able to start my week fresh. Being a Catholic means a lot to me because I can say to other people that I believe in God and that I am proud to be a Catholic. By going through this Confirmation, I want to assure this. ● Rachel Dominica Yim ●

Ever since I was born, my life was forced into the Catholic religion and I couldn't wait to convert as I got older. Growing up, the highlight of my summers were the TFPC (a Presbyterian Church) Vacation Bible Study Camps I attended when I was young. It was so easy to recognize how spiritual they were compared to the few Catholics I knew. I felt really ashamed of being Catholic back then until I got older and came to realize the stability that it brought into my world. The traditions of receiving the Eucharist and being able to confess all the things that ate at me, brought me sanity in my life during a time when I considered ending it... yeah it was really that bad. In middle school, I was really messed up; I would always skip Mass for 7-11 and fervently enjoyed turning my classes against what all our Sunday teachers said (along with other things). None of them could reach me because they couldn't understand the doubts I had about God much less Catholicism. I think they thought I was naive, dismissing the fact that I knew a lot more about the negative things in our Catholic history than I led on. The looks I got from all of them ticked me off even further and I guess wanting to know everything caused me to further disbelieve in all of it; I had never felt so alone even with friends, and I could feel myself spinning out of who I was. Seeing how far I went down that road and knowing where I am now, I feel so~ blessed. As if God cared enough to call me back even when I had questioned His stature and shut Him out so coldly. He let me feel His presence at the High School Youth Conference, Steubenville, S.D. and it hit me so hard that I couldn't breathe. See, before the conference I wasn't able to cry for a long time, like my emotions were so warped that I was more of a shell than a person. It was a weird feeling being able to let him in so quickly that I guess crying was His way of allowing me to let it all go. It felt like a hot hand was pushing down on my back, and when I felt myself get under control again, I looked around and saw hundreds of kids like me touched in the same way. Even though I may never see those people again, it was amazing to realize that being Catholic threaded all of us together. After that I was hooked, and I started studying Catholicism again. The things I've learned and experienced through being Catholic is something I'm more proud of than anything else I can do or accomplish. I am proud of being unique and grateful for how my life has been touched by such grace. I am ready to give my life to Him and the Church, and it's my hope that next year's Confirmation class will be just as ready. JESUS! ● A candidate ●

다음 주에 계속 ☞